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김창식, 서기관 김지훈
(044-200-2135)

아제르바이잔 아사도프 국회의장 면담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6.26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「옥타이 아사도프 (Ogtay Asadov)」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,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이 총리는 올해 한-아제르바이잔 수교 25주년을 맞아 아사도프 의장의 공식 방한이 이루어진 것을 뜻깊게 평가하고,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간 우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.
 - 아사도프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측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상·의회 교류 등을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.
- 아사도프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,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등 분야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을 추진해나가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 협력의 기회가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.

○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 관련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,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아제르바이잔의 자원 등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기대하였다.

※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석유·가스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큰 수출시장

※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현황

- 총 46건 14억불 규모 수주(2017년 현재 누계) / 삼성엔지니어링의 비료공장 건설(6.5억불), 한솔EMC의 하수처리장 건설(4800만불) 등 진행중

□ 양측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문제 등 문화 분야 교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